

[142] 이인양(李寅陽)<李朝 ? ~ ? >

字는 斤汝, 號는 山水齋, 本貫은 全州, 江翁 泰淵의 아들이다. 全齋 任憲晦의 門人인데 孝友와 學行으로써 士友들이 推重하는바 되었다. <朝鮮 輿勝覽>

[143] 김우덕(金禹績)<李朝 ? ~ ? >

牙山出身人, 丙子胡亂時 把摠으로 南漢山城을 防禦하다가 戰死하니 온고장의 사람들이 애석하게 여겼다. <朝鮮 輿勝覽>

[144] 윤지복(尹之復)<李朝 ? ~ ? >

호는 勇菴, 本貫은 新寧, 玄孫이다. 鄭斗鄉, 車天輅, 閔師聖, 孔希聖, 李震行, 鄭雲鵬, 姜就武등과 더불어 八文章이라 칭하였다. 宣祖朝에 進士에 올라 江原道都事로 있을때에 橫城의 叛賊 李仁居를 生捕하여 一等功臣이 되었다. <朝鮮 輿勝覽>

[145] 유혁로(柳赫魯)<哲宗 3年(1852) ~ ? >

獨立黨員, 牙山郡 仁面 出生이다. 高宗 18年(1882) 修信使 朴泳孝의 隨行員으로 日本에 다녀왔다. 高宗 21年(1884) 甲申政變에 獨立黨의 行動隊員으로서 通信連絡과 偵察任務를 맡았고 甲申政變의 失敗로 金王均등과 같이 日本에 亡命하여 朴泳孝의 指導下에 留學生寄宿舍인 親隣義塾을 經營하며 本國에서 派遺된 刺客에 의해 生命의 威脅을 받고 있는 獨立黨要人의 身邊保護를 當했다. <韓國人名大事典>

<異說> 仁面出生, 武科及第, 軍務衙門參議를 거쳐 陸軍副領으로 砲工局長을 지내고 純宗 2年(1909)에 平安北道觀察使, 純宗 3年(1910)에 京畿道參與官, 1916年에 忠淸北道長官 1921年에 中樞院參議를 歷任했다. <朝鮮新聞社內 朝鮮人事興信錄編纂部發刊>

[146] 이학승(李學承)<李朝 ? ~ ? >

字는 景習, 本貫은 全州, 景明君 貞敬公 의 后裔이다. 哲宗朝에 武科에 及第하여 宣傳官, 訓練僉正을 歷任하였고, 壯衛隊官으로서 長城 月坪戰役(東學亂)에서 殉節하였다. 左承旨를 追贈하고 獎忠壇에 配亨하였다. 墓所는 牙山郡 仁面 新峴里 後麗에 있는데 判書 金鶴鎭이 墓誌를 撰하고 參判 李冕相이 墓碣을 撰하였다. <朝鮮 輿勝覽>

[147] 홍필주(洪弼周)<哲宗丁巳年~1917>

字는 士亮, 號는 紫隱, 本貫은 山, 判敦府事 萬朝의 6代孫, 哲宗丁巳年 9月 9日 牙山郡 排芳面 細橋里(안골)에서 出生하였다. 幼時로부터 聰明이 過人하고 才氣가 出衆하며 博學多聞하고 識見이 高邁하니 士友間에 王佐의 材라는 稱頌이 자자하였다. 當時 內憂外患이 激增하며 地方民心이 惶惶한 가운데 高宗丙申年 義禁府都事 宗人 有周와 感鏡道觀察使 李南珪가 高宗께 上疏하여 安東觀察府參事官으로 拔擢되었다. 그후 安東府事兼 安東郡守로 轉任하매 玄風郡民들이 그 功績을 讚揚하여 萬人傘(우리나라에 三基밖에 없음)을 贈呈하고 致賀하였다. 高宗辛丑年에 大邱郡守로 轉任하였으나 其當時 淸日戰爭이 終了되면서 日本등이 朝廷을 干涉하매 全國이 소요스러웠다. 그는 生覺한바 있어 官職을 辭職하였다. 高宗께서 在在時 功績을 讚揚하여 中樞院參議官, 正三品通政大夫로 追贈하였다. 隱居하던 中國家가 混亂하며 世中이 亂雜하여지매 庚戌年六月에 日本國東京에 가서 當時 日本國總理大臣 大 重信 그리고 伊藤博文, 豆山滿등 日本政界首○들과 會談하여 我國家는 自主國家요 엄연한 獨立國家임으로 我國政事에 干涉함이 千萬不當하다고 抗議痛論하였다. 其時 中國의 李鴻章(號北洋大臣)이 派送한 有名한 政論家 梁啓超가 東京에 왔다가 韓人 洪公이 滯留中이라는 消息을 듣고 箱根莊舍로 來訪하여 三日間이나 同宿하면서 東洋大勢를 論議하였다. 그후 그의 日記에 洪公을 稱讚하여 말하기를 古今을 通觀하는 憂國志士라고 하였다.

郎時 梁啓超는 李鴻章에게 報告하여 李鴻章의 親筆인 文章이라는 大幅簇子를 公에게 贈呈하였다. 그는 歸國하여 當時나라를 바로 잡자면 무엇보다도 民衆을 啓蒙하고 靑少年들에게는 新學問을 傳授함이 時急하다는 것을 痛感하여 隆熙元年 11月 當時 憂國志士 尹致昨, 權東

鎭, 南宮○, 呂炳鉉, 柳瑾, 李宇榮, 張志淵, 鄭雲復, 金嘉鎭, 尹孝定, 南延哲, 閔衡植, 池錫永, 吳世昌, 兪鎭泰, 睦相弼등과 같이 大韓協會를 組織하는 한편 協會報를 發刊하여 國民들을 啓蒙善導하였으며 또한 畿湖興學會(現中央高等學校)를 設立하고 初代學武部長으로 就任하였다. 이곳에서 獨立運動家로 安昌浩, 洪震, 申圭植, 趙琬九등 많은 人材를 排出하였다. 그리고 그는 張志淵, 金在翼, 鄭萬朝, 尹善九등과 같이 大東詩選을 편찬하였다. 著書로는 紫稿小藏, 黨史略論, 文集등이 있다. 그는 恒常民衆啓와 같이 靑少年教育에 沿頭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3.1運動二年前인 丁巳年 12月12日 서울에서 卒하였다. 墓所는 牙山郡 排芳面 細橋里 玉女峰에 있다. <紫隱洪公弼周之墓碑銘>

[148] 임공열(任公烈)<李朝 ? ~ ? >

字는 聖武, 號는 欽齋, 本貫은 川, 孝貞公 弘望의 后裔이다. 田長齋의 門人으로 孝行이 特着하고 氣概와 節義가 있어 乙巳保護條約에 抗疏를 올렸고 庚戌國恥後에 倭皇이 주는 所謂 "恩金"을 拒絕하였다. 五倫行實錄을 著述하고 萬古鑑과 訓蒙格言을 지었다. <朝鮮 輿勝覽>

[149] 방인근(方仁根)<高宗 36年(1899) ~ ? >

李朝末期의 小說家, 雅號는 春海, 溫陽人이다. 培材學堂을 거쳐 日本中央大學經濟學科를 卒業했다. 1919年 同人誌創刊에 [눈오는밤]을 처음 發表하고 1924年 私財를 털어 朝鮮文壇을 經營하여 新文學初期에 貢獻을 하였으며 「새벽길」 「人生劇場」 등 많은 作品을 發表했다.

[150] 표연말(表沿沫)<李朝? ~燕山君 4年(1498)>

字는 少遊, 號는 藍溪이며 新昌人이다. 成宗壬辰年에 生員, 文科에 급제하고 丙午年 重試에 及第되어 藝文 檢閱(翰材)이 되고 諫官으로 任仕洪의 奸邪함을 論駁하다가 士洪의 誣告로 귀양을 갔다. 沿沫이 父母喪에 꼭 珠子家禮대로 行하자 金宗直이 行檢이 있다고 薦하여 同知 成均○進되었다. 燕山 戊午士禍에 金宗直의 門徒로 刑枚하여 멀리 귀양가다가 道卒하였다. <東儒師友錄>

[151] 정 질(鄭)<中宗 21年(1525) ~ ? >

李朝明宗때의 文士, 字는 景舒, 號는 萬竹軒, 寒歲堂, 道遙山人, 耐振居士, 本貫은 溫陽, 領議政 順朋의 아들이다. 明宗 7年(1552) 아우 ○와 함께 進士에 合格하고 벼슬은 郡守에 이르렀다. 글씨에 능하였으며 判書 所後公의 碑碣과 忠勳府의 扁額등을 썼다. 또한 詩文에도 能하여 일찌기 海州에 재임시 영芙蓉堂의 懸板을 自作詩를 달았었다. <萬竹軒遺稿...等>

[152] 이 희(李)<李朝 ? ~ ? >

字는 茂伯, 本貫은 德水, 李忠武公의 長子이다. 宣祖 31年(1598) 露梁海戰에서 큰 功勳을 세웠다. 그후 任實고을의 원이 되어 治績이 淸簡했다는 稱頌을 받았으며 官은 僉正에 이르고 原從功臣에 策錄되어 左承旨에 追贈되었다. <新定牙州誌>

[153] 표정로(表廷老)<李朝 ? ~ ? >

李朝宣祖때의 譯官, 本貫은 新昌, 譯官憲의 아들이다. 遠接使로 明나라 使臣을 맞이하였을 때 文章으로 問答을 하여 明使를 크게 놀라게 하였다. 벼슬은 崇祿知樞에 이르렀고, 中年에 벼슬이 그의 아버지 보다도 높았으므로 父子와 같이 同廳에 있을 수 없어 別遞兒에 있게 하였으니, 堂上別遞兒는 이때부터 始作되었다. <宣祖實錄, 光海君日記, 通文館誌>

[154] 조이익(趙爾)<光海君8年(1618)~顯宗1年(1660)>

本官은 楊州, 時菴 趙相禹의 세째 아들로 牙山出生이다. 文敬公 金集이 朝廷에 薦書하여 仁祖와 孝宗때에 顯監이 되었다. 어려서 부터 孝子인 아버지를 본받아 忠孝心이 남달랐고 友愛心이 또한 敦篤하였다. 仁祖 27年(1649) 仁祖大王이 丙子胡亂의 國恥를 씻지 못하고 昇遐하자 3年間 蔬食하여 國喪을 치렀고 孝宗 10年(1659) 懷德縣監으로 있을때 孝宗大王이 昇○하자 또 蔬食하며 國喪을 치르다가 이듬해에 病이 나서 세상을 떠났다. 죽은뒤에 大德郡 懷德面事務所앞에 大菴宋時烈이 撰하고 同春堂 宋浚吉이 쓴 沿世不忘碑가 세워졌고 그후 60餘年후에 忠淸道 儒林代表 김석래등의 上疏로 鐵가 세워졌으나 지금은 볼수가 없다. 顯宗 때 그의 忠節을 가상히 여겨 承政院左承에 追贈하고 또 旌閭를 내려 그의 父親과 함께 牙山郡 溫陽邑 溫泉里 山18番地에 잇달아 旌門이 세워졌다. 墓所는 牙山郡 松岳面 首谷里 山 125- 1에 있다. <輿地圖書(溫陽郡)>

[155] 맹만시(孟萬始)<仁祖 14年(1636)~ ? >

李朝中期の 書畫家, 字는 元之, 號는 相杵, 本貫은 新昌, 胤瑞의 아들이다. 顯宗 14年 (1673)에 進士가 되고 벼슬이 郡守에 이르렀다. 書畫를 좋아하였는데, 特히 소를 잘 그리 有名하여 친구들이 돌려가며 보고 보물도 삼았다.<槿城書畫徵>

[156] 정인경(鄭仁卿)<元宗8年(1267)~ 忠烈王31年(1305)>

高麗 忠烈王때의 重臣으로 처음에는 舌人(通譯)으로 시작하였다.

高宗 46年(1259) 蒙古軍이 新昌을 침범하였을 때 이에 從軍하였다가 밤을 이용하여 적진 을 공격한 공으로 軍校에 桶하였다.

元宗 10年 忠烈王이 世子로서 蒙古에 들어갈 적에 鄭仁卿이 수행하고 귀국하던 중 林衍 이 元宗을 폐하였다는 정보를 들었다. 그때 그의 父인 鄭臣保는 麟州의 守令으로 있었으므로 鄭仁卿은 몰래 鴨綠江을 건너 부친에게로 가서 林衍의 反逆勢를 탐문하고 돌아와 世子에게 보고하였다. 그러나 林衍의 元宗廢位事件은 몽고의 간섭으로 곧 수습되고 鄭仁卿은 上將 軍까지 올랐으며, 忠烈王이 즉위한 뒤에 그때 侍從한 功으로 三等功臣에 오르고 그의 고향인 富城縣을 瑞州縣으로 개칭하였다.

忠烈王 16年(1290) 哈丹의 침입으로 왕이 江華에 蒙塵할 때 이에 시종하여 또 공을 세우고 그뒤 品階는 大匡(正一品). 官職은 中贊에 이르렀으며, 安社功臣으로 책봉되었다.(高麗史, 高麗史節要, 輿地圖書(瑞山))

[157] 맹 의(孟儀)<忠烈王 20年(1294)~ ? >

本貫은 新昌, 忠烈王 20年(1294)에 태어났다. 文科에 及第하여 禮部의 侍郎을 거쳐 禮部 典書가 되었다. 그는 當時 有名한 學者였으며 아울러 名將이 기도했다. 禮部典書로서 曹顯 의 亂때 戰功을 세워 新昌伯에 封해졌다. <紫華先生文集>

[158] 맹 유(孟裕)<忠肅王 2年(1315) ~ ? >

本貫은 新昌, 禮部典書 儀의 아들이다. 高麗恭愍王朝에 文科及第하고 여러 벼슬을 거쳐 吏部尚書를 지냈으며 中京誌를 撰하였다. 學德이 높고 忠臣은 不事二君이란 고결한 節概를 지키어 끝내는 저 有名한 社門洞 72賢의 한분으로 太學生, 會議生, 林元味등과 함께 西社門 洞에 들어가 義理를 지키다 李成桂의 軍事革命으로 殉節하였다. 李朝英祖辛未年에 表忠祠를 세워 三節臣을 竝亭하였다. <朝鮮 輿勝覽, 紫華先生文集>

[159] 박의중(朴宜中)<高麗 ? ~ ? >

高麗末의 名臣, 字는 子虛, 初名은 寬, 號는 貞齋, 諡號는 文敬公, 版圖摠郎 仁杞의 아들이다. 恭愍王때 魁科에 급제, 獻納司藝가 되었다가 禡王이 즉위하자 成均大司成을 거쳐 密 直提學이 되었다. 1388年(禡王 14) 明나라는 鐵嶺以北을 그들의 領土로 삼으니 使臣으로 明나라에 가서 뜻뜻한 言動으로 明太祖의 지극한 대우를 받으면서 鐵嶺 以北 占領에 대한

主張을 撤回시키는데 成功하고 돌아와 昌王으로부터 功臣의 號를 받았다.

恭讓王때 書雲觀에서 漢陽遷都를 上疏하자 王은 이것을 宣中에게 상의하니 예로부터 術數로 나라를 다스린 일은 없었다고 陰陽說이 믿을 수 없음을 얘기하였다. 뒤에 李朝에 들어서 檢校參贊議政府事가 되었다. 性理學에 밝았고 文章이 아담하기로 이름이 나 있었다. 墓所는 舊 溫陽郡一北面 赤川洞에 있었다. <朝鮮 輿勝覽>

[160] 이숙치(李叔峙)<高麗恭讓王2年(1390)~世宗28年(1446)>

李朝世宗때의 重臣, 諡號는 順節, 韓山君 穡의 孫子, 高麗簽書密直 種學의 아들이다. 16才에 生員에 合格, 奉常寺錄事가 되었고 兵曹參議에 이르러 忠淸道觀察使로 나갔다. 世宗 15年(1433) 北邊의 外賊을 칠때 特命으로 平安道都觀察使가 되어 時急한 軍糧補給에 功을 세워 工曹左參判의 命을 받고 이어 平安道觀察使가 되었다. 이듬해 大司憲으로 때마침 함길도觀察使가 缺員이 되었으므로 廟堂에서 叔峙를 추천하니 世宗은 外地에서 功勞가 많았는데 再任시키기는 안됐지만 適任者는 叔峙뿐이라 하여 또 觀察使에 任命되었다. 世宗 22年(1440) 知中樞府事를 거쳐 左參贊兼戶曹判書가 되었다. 世宗이 溫陽에 行幸하였을 때에 扈從하여 그가 지은 溫陽溫泉題詠(郊殿祥雲合)이 있다. <世宗實錄... 等>

[161] 이 변(李邊)<李朝 ? ~ ? >

本貫은 德水, 贈領相 晉의 아들이다. 太宗朝에 文科及第하여 弘文 提學이 되었다. 벼슬이 領中樞府事에 이르고 耆老社에 들었으며 訓世評誥를 著述했다. <朝鮮 輿勝覽>

[162] 박원형(朴元亨)<太宗11年(1411)~衛宗1年(1469)>

李朝世祖때의 文臣, 字는 之衢, 號는 晚節堂, 諡號는 文憲, 本貫은 竹山, 兵曹參議의 아들이다. 일찍부터 詩文으로 이름을 떨쳤고 世宗 14年(1432) 司馬試에, 世宗 16年(1434) 謁聖試에 及第後 啓功郎禮寶直長, 義禁府都事, 司僕少尹知製教를 歷任, 文宗郎位後 左承旨에 被命, 世祖때에 都承旨가 되었고, 靖難功臣의 號를 받아 延城君이 된 후 左議政에 이르렀다. 性質이 嚴格하고 度量이 넓어 宰相으로서 遜色이 없었으며 매우 儉素하게 살아 當代의 名臣이라 하였다. 世祖가 溫陽에 行幸하였을 때 扈從하여 그가 지은 溫陽郡題詠(陞號天恩重, 封疆士德亨)이 있다. <國朝人物考, 朝鮮 輿勝覽>

[163] 심구령(沈龜齡)<李朝 ? ~ ? >

太宗朝에 佐命功臣으로 策錄되고 山君에 封해졌으며, 벼슬은 正憲大夫에 이르렀다. 諡號는 靖襄公이며, 不 廟를 命하니, 牙山郡 道高面 新通리에 그 廟가 있다. <朝鮮 輿勝覽>